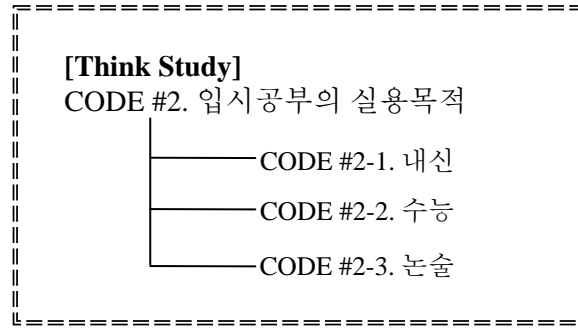


[Think Study 2(입시공부의 실용목적)] _ CODE



2. Think Study _CODE (입시공부의 실용목적)

어떠한 공부든 그 최종 목표에는 ‘시험’이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해야 하는 입시공부 역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과정이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입시 공부는 결국 대학 입시의 3축이라 일컫는 내신, 수능, 논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Think Study 두 번째 단원에서는 내신, 수능, 논술과 관련하여 실용적인 입시공부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자.

[Think Study]

CODE #2. 입시공부의 실용목적

**『입시공부를 해야 하는 실용적인 이유는,
3대 시험인 내신/수능/논술 때문이다.』**

- 내신/수능/논술 : 대학입시에서 90%이상의 비중 차지
- 최우선 투자 : 3대 시험에 시간/노력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기타영역은 여유발생 시에만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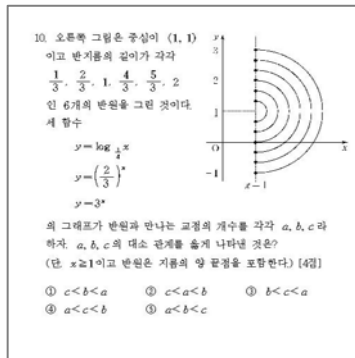
[Think Study 2(입시공부의 실용목적)] _ CODE

[참고자료 _ 대한민국 입시 문제 변천사]

19. 집합 $A = \{1, 2, 3, \dots, 499\}$ 에서, 집합 A 의 원소 중 임의로 서로 다른 수 251 개를 뽑으면 이 중 두 수의 합이 k 인 자연수의 순서쌍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때, k 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8점]

① 250 ② 251 ③ 500 ④ 750 ⑤ 751

<1세대. 학력고사 문제>



<2세대. 수능 문제>

(다)
일반적으로 인구는 기회가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지역들 사이에 기회가 차이가 클수록 인구 이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어느 한 곳에 기회가 집중되어 있으면 인구도 그곳으로 몰리게 된다. 다시 말해 경제적 기회, 교육의 기회, 오락의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지속적인 인구 집중이 일어나게 된다.
도시화는 순대파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지난 60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급격한 근대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량 유입되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인구는 총인구의 약 80%이다. 이에 정부는 농촌인구의 감소를 억제하고 도시와 농촌 인구 비율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다음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인구 변화에 관한 국내의 상황을 연구한 관련 자료이다.

<자료 1> 국내의 농촌인구 변화 사례
(전략).....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사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전년도 농촌인구의 10%가 도시로 이동하였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국내 도시인구와 농촌인구가 합쳐 일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농촌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인구 중 비율 p 에 해당하는 인구를 매년 농촌으로 이주시켜, 현재 8:2인 도시 대 농촌의 인구 비율을 7:3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연구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의 정책을 제안한다. 정책 1은 p 의 값을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고, 정책 2는 p 의 값을 매년 재조정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자료 2> 외국의 농촌인구 변화 사례
농촌 거주와 도시 거주에 대한 선호도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프는 국가 A와 국가 B의 농촌인구의 변화 추이를 장기간 수집한 자료와 예측 자료를 토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현재 인구에 대한 농촌인구의 비율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농촌인구 비율의 증감을 나타낸다. 현재 농촌인구의 비율은 국가 A의 경우는 0.1이고, 국가 B의 경우는 0.6이다.



<3세대. 논술 문제>

<1세대. 학력고사>

대한민국 입시의 1세대 시험은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을 빠짐 없이 기억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제가 짧고 단순하여 암기와 연산으로 풀이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제시한 단편적인 지식을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세대. 수능>

1990년대 수능능력시험으로 입시제도가 변화하였다. 단순 암기에만 초점을 둔 평가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이해력과 응용력이 고득점의 기본 요건이 되는 수능시험을 고안해 낸 것이다. 문제만 보아도 1세대 학력고사와 2세대 수능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능은 학력고사에 비해 문제가 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개념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 단원이 통합된 문제,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해력과 응용력을 키우지 않으면 고득점을 기대할 수 없다.

<3세대. 논술>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3세대 논술시험이다. 초기에는 서술형 문제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수학, 사탐, 과탐 등 교과목 지식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논술은 “30~40점짜리 주관식 수능”이라 말할 정도로, 수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논술을 대비할 때는 수능대비법에 한 가지 조건만 추가하면 된다. “이해.응용력”이 아니라 “심화된” 이해/응용이라는 점이 그것이다.